

119

International Magazine of Space Design | bob |

THERE | DEAN STREET EXPRESS
EEMHUIS, AMERSFOORT
GENTLE MONSTER QUANTUM |
bob COORDINATION_CONSTANCE
GUISSET

bob COLLECTION :

CAFE & RESTAURANT

Born in 1976, Constance Guisset lives and works in Paris. After studied in Business and Political Sciences, she chose to turn towards design and enters ENSCI design school from which she graduated in 2007. Since she established her own studio in Paris in 2007, she worked with many French and international furniture editors like Molteni, Petite Friture, FontanaArte, Established & Sons and etc. In 2010 she is named among the 'ten designers of the year' and wins the Audi Talents Award. She is interested in doing objects in movement, objects that evoke people of somewhere else, that take them to a sort of dream or illusion. Poetry is somehow for her an inspiration, insofar as few words can suggest a lot. Maybe few lines in a shape can evoke another world.



CONSTANCE GUISSET

콘스탄스 귀셋(1976년)은 파리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경영과 정치학을 공부한 그녀는 디자인 공부를 위해 다시 프랑스 국립 산업 디자인 학교(ENSCI)에 진학했다. 그녀는 2007년 파리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설립한 이후 몰테니, 뽀띠 프리처, 폰타나아르테, 이스타블리시드 & 선즈 등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구 브랜드와 많은 작업을 했다. 또한, 그녀는 2010년에 '올해의 디자이너' 1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아우디 텔런트를 수상하기도 했다. 주로 움직이는 물체를 제작하는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사물을 보는 순간 꿈이나 환상 같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빨려들어감으로써 현실에서 느끼지 못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데에 관심을 둔다. 그녀는 간결한 단어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시에서 영감을 얻으며, 단순한 형태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편집: 신예은 기자



1



2



3



4



5

- 1. WINDMILLS COLLECTION** : <Windmills collection> is composed of three round poufs of different sizes. The succession of fabrics and colors reminds of historical chromatic researches.
- 2. ANKARA 2009 COLLECTION** : This collection is in line with the Star table group designed in 2009 for the French Institute in Ankara. Composed of 5 tables, their simple and elegant lines reveal surprising shifts of colors, changing with the light.
- 3. PORTOBELLO** : <Portobello> is a contemporary vision of the chandelier. Its uncluttered metallic upper structure envelops and maintains the profusion of gleaming pearls springing out of it, diffusing the light in an infinite number of rays.
- 4. PLUME** : It seems to hover in a continuous breath of air, delicate horizontally suspended. <Plume> made by paper, offers a soft and delicate form.
- 5. CHANTILLY LAMPS** : <Chantilly lamps> are dancing objects on long and elegant plywood legs. Delivered flat, they can be assembled thanks to press studs in one simple gesture.

- 1. 윈드밀 컬렉션** : <윈드밀 컬렉션>은 각기 다른 크기의 원형 쿠션 세 개로 이루어졌다. 제품에 나타나는 천과 색상의 연속성은 색채의 역사적인 연구를 보는 듯하다.
- 2. 앙카라 2009 컬렉션** : 스타 테이블로 나열된 <앙카라 2009 컬렉션>은 앙카라에 위치한 프랑스 학교를 위해 2009년에 제작됐다. 다섯 가지 종류로 구성된 테이블의 단순하면서 우아한 선은 빛의 변화와 함께 흥미로운 색의 변화를 보여준다.
- 3. 포르토벨로** : <포르토벨로>는 상들리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명이다. 깔끔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상부 구조물은 아래로 뻗은 반짝이는 풍성한 진주를 고정시킴과 동시에 진주의 빛을 수많은 빛 줄기로 분산시킨다.
- 4. 플럼** : 정교하게 수직으로 공중에 떠있는 <플럼>은 공기와 같은 흐름 안에서 부유하는 느낌을 준다. 이 램프는 종이로 제작되어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형태를 선보인다.
- 5. 샹티이 램프** : <샹티이 램프>는 길고 우아한 합판 다리에 매달려 춤추는 듯한 모습의 조명으로, 평평한 상태로 배송되지만 단추를 눌러 쉽게 조립할 수 있다.



1. **STELLA** : <Stella> is a revolving shelf. It is a dancer bookcase. It spins around, showing off each and every aspect of its composition. Elegant, transparent, and graphic, it is the safe place of our most precious possessions: books, plants, private collections etc.
2. **VERTIGO** : <Vertigo> is an enveloping lamp that creates a space of intimacy. The lightness of the lamp makes it mobile to the rhythm of the air: it turns softly, projecting an almost transparent graphic space between the floor and the ceiling.
3. **CAIRN** : <Cairn> is a wooden magnetic boxes ensemble that can be assembled in awkward positions.

1. **스텔라** : 회전하는 선반이자 춤추는 책꽂이 <스텔라>는 회전을 통해 제품의 다양한 면들을 보여준다. 우아하면서 투명하고 그래픽적인 이 책꽂이는 책, 식물, 개인적인 소장품 같은 물건을 보관하기에 적합하다.
2. **버티고** : <버티고>는 감싸져 있는 형태의 램프로 친밀한 공간을 조성한다. 이 제품은 공기의 리듬을 타면서 부드럽게 회전하고, 바닥과 천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3. **케른** :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자유롭게 배치되는 <케른>은 목재로 제작된 자석 박스의 앙상블이다.

Photo © Gabriel da Vienna



4

Photo © GUISSET



5

Photo © GUISSET



6

4. DUPLEX: This is an aquarium/cage favoring an improbable encounter between a bird and a fish. The aquarium is thermoformed so as to create a space where the bird can fly at the same visual level as the fish.

5. DRAPEE: <Drapee> is a chair made of steel wires. The lines between the back and the seat reproduce the fluid motion of a drape. They are framed by a curve that cross delicately and extend to form the feet.

6. SOL: <Sol> is a rocking chair made of laser cut aluminium, bent and lacquered. Its complete asymmetry in the shape and in the lines motive creates an illusion of movement and allows to have surprising views from each side.

4. 듀플렉스: 불가능할거라 생각했던 새와 물고기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듀플렉스>는 어항과 새장의 결합품이다. 열 성형으로 제작된 어항은 새와 물고기가 같은 시각적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5. 드라페: <드라페>는 철사로 만든 의자로, 좌석과 등받이 사이의 선은 휘장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묘사한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프레임은 서로를 섬세하게 가로지르며 다리를 형성한다.

6. 솔: <솔>은 레이저로 절단된 알루미늄을 구부리고 옷칠하여 만든 흔들의자다. 형태와 선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비대칭성은 마치 움직이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각 측면에서 봤을 때 놀라운 모습을 제공한다.

083
bob



Photo © Guisset



Photo © Guisset



Photo © Guisset

1. FRANCIS : <Francis> is a circular mirror born from chromatic experiences with pigments on water. The user contemplates himself through the luminous oxidation that reminds a planet in an illusion of convexity.

2. COL DE VOYAGE AND LUNETTES DE SOMMEIL : <Col de Voyage and Lunettes de Sommeil>, objects inspired by the idea of Voyage and imagined for Louis Vuitton's Objects Nomades collection. The idea was to reconceive the traditional travel kit.

3. NIJIMI CUSHIONS : <Nijimi cushions> are researches on colors and watercolors. A chromatic cloud emerges from a stream of light pigments. Like an invitation to a vaporous dream on a delicate percale. Abandon in a colorful explosion.

1. 프랜시스 : <프랜시스>는 물과 색소의 조합에서 나온 유채색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원형 거울이다. 사용자는 빛나는 산화를 통해 불룩한 환상의 세계를 떠올리며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2. 콜 드 보야지 앤드 루네티 드 소메이 : <콜 드 보야지 앤드 루네티 드 소메이>는 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으로, 루이비통의 오브젝트 노마드 컬렉션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품은 전통적인 여행 키트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3. 니지미 쿠션 : <니지미 쿠션>은 색상과 수채화의 조화에 대한 연구이며, 색소로 된 물줄기에서 유채색 구름이 퍼져 나오는 듯하다. 섬세한 천에 퍼진 안개 낀 꿈속으로의 초대처럼 제품은 다채로운 색의 폭발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Photo © Rib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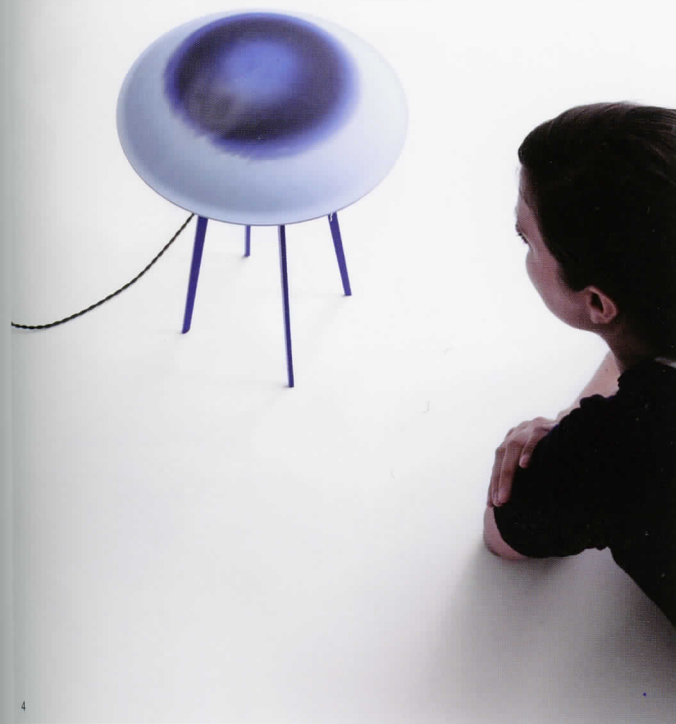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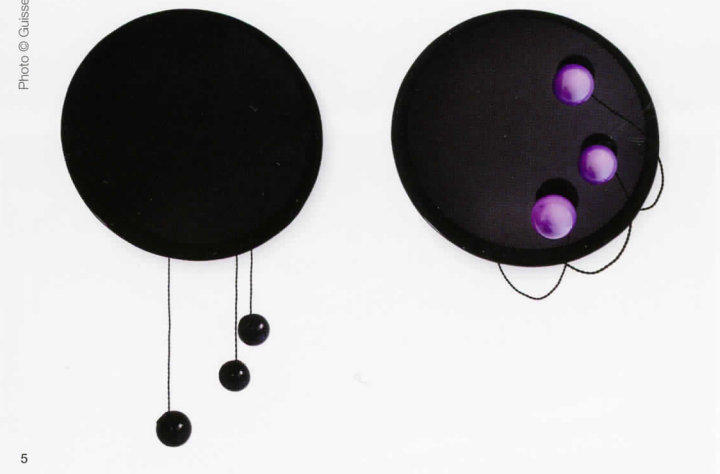


Photo © Ribon



Photo © Guisset



085

bob

4. DESSUS-DESSOUS & DESSOUS-DESSUS : <Dessus-Dessous > and <Dessous-dessus> are two lamps made of ceramics pieces set upside down. The shading blue gradations were born from research on color revelation by laser. Colors fade with the slope: they disappear when the laser lens blurs.

5. COULISSE : <Coulisse> is a black mirror from which black glass spheres are hung. When the glass bubbles touch the mirror, they switch on and remain on the surface thanks to a magnetic system. Light reveals a translucent purple glass. The bubbles reflect on an immaterial ground and create an imaginary landscape between dance mirror and constellation.

4. 드쉬 드수 & 드수 드쉬 : <드쉬 드수>와 <드수 드쉬>는 세라믹 조각을 거꾸로 뒤집어 만들어진 램프 세트다. 단계적으로 변하는 파란색 명암은 레이저를 이용한 색 추출의 연구에서 만들어낸 결과로, 제품의 색상은 경사면에 다다를수록 희미해지면서 레이저 렌즈가 흐릿해질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5. 쿨리스 : <쿨리스>는 검은 유리 구체들이 매달려 있는 검은색 거울이다. 유리 물방울들이 거울에 닿으면 자석에 의해 그대로 면에 고정되고 빛에 의해 반투명한 보라색 유리가 나타난다. 유리 물방울들은 무형의 장소에 반사되어 거울과 별자리 사이에 상상의 전경을 만들어낸다.